

격변과 혼돈의 세계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김 홍 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사)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
WWW.PLAZAPROJECT.ORG



김 홍 규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국제정치학 학사 및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정치학박사

[경 력]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 플라자 프로젝트 이사장

국무총리실, 국방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정책자문위원

국회 미래연구원 외교안보포럼 워킹그룹 위원

국회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자문위원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전문위원 역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 소분과 위원장 역임

외교부 외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역임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 역임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수석실 정책자문위원 역임

국회, 국정원, 외교부, 기재부, 통일부,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 등 국가기관의 정책자문위원 역임

∴ 이 발표는 전적으로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발표자의 동의없이 인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와 학술 활동]

- 미중 관계, 중국 외교안보, 북중 관계, 동북아 국제정치 관련 300편 이상의 글과 기고가 있음
- 저서로는,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 (폴리테이아, 2007)는 2008년 문광부 추천 우수학술 도서에 선정,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 (명인문화사, 2021), **『중국 패권전략』 (더블, 2025)**
- 역서로는 Kerry Brown, 김홍규(역), 『현대 중국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14(1판), 2020(2판)

[대외활동]

- 2018년 1월~7월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방문학자
- 2020년 2월 스웨덴 The Institute for Strategy and Development Policy(ISDP) 방문학자
- 2022년 9월~12월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방문학자
- 2023년 1.20~2월 스웨덴 The Institute for Strategy and Development Policy(ISDP) 방문학자
- 니어(NEAR) 재단에서 선정한 2014년 한국 외교안보부문 학술상 수상자
- **2024.9.15. KBS1 [쌈과함께] 200회 특집 “생존과 소멸 “ 쌈으로 출연**

[매체활동] 조선, 국민, 세계, 서울경제, 국방일보, 중앙일보 ‘한반도 평화와치’ 등에서 정기 기고

- [문화일보] 문화지식포럼 외교안보 분과위원, ‘Deep Read’ 칼럼리스트
- [경향신문] ‘김홍규의 外交萬事’코너 칼럼리스트 (2022.1~2026.1)

들어가면서:

21세기 전반 누가 세계 패권을
장악할 까?
한국의 생존전략은?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
& 대한민국 생존의 길

중 ★ 국 패권전략

김홍규 지음

현오석
前 경제부총리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 추천 ★

CHINA
HEGEMONY
STRATEGY

더봄



세계는 대혼돈과 격변의 시기

19세기와 같은 강대국 우선주의와

정글의 법칙 재부활

⇒ “위기의 시대”

『중국 패권전략』 (입법 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025년 9월호)

『중국 패권전략』은 중국만을 연구한다기보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대한민국 생존의 길'을 찾는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중국)과 해양세력(일본/미국)이 충돌해왔다.

중국은 현재 러시아, BRICS,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질서에 새로운 다극화 흐름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지정학/지경학적 특수성을 살려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아우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과는 일방적 의존에서 상호이익을 주고받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을, 중국과는 막연한 감정과 무지를 넘어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중 정책과 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간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중 외교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특히 중국에 파견하는 대사는 정치적 인물보다 대중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나아가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심원을 그리면서 단·중·장기적 변화를 고려한 다차원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몇 문장 말로는 쉽지만 실행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리더의 혜안이 절실하다.

저자는 특히 이 시점에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강대국 마인드'라고 강조한다. 한국은 기존의 북한 중심, 한반도 주변 외교, 미중 사이에서 압박받는 국가의 모습에서 벗어나 세계적 범위의 전략적 시야로 정책을 펼쳐도 되는 국력을 가졌음을 자각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당파성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은 지혜, 안정성, 추진동력을 약화시키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 또한 주장은 쉽지만 실행까지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므로 탁월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저자는 '자강의 군사전략과 역량 확보'부터 '국민통합'까지 '7대 정책 채택'을 제안하는데 이는 새롭고 혼란한 시대 '한국의 국제 생존 루트'이다.

364페이지를 꽉 채우는 저자의 많은 주장 중 핵무기에 대한 관점이 특히 눈에 띈다. 당장의 핵무장이 어렵다면 '핵은 핵으로만 억제가 가능하다는 신화에서 탈피하라. 핵도 군사무기의 일부일 뿐이다. 응징적 보복·타격 능력을 확보해 남북한 균형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중국 패권전략>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전략, 중국의 군사안보 전략, 중국의 경제통상 전략, 중국의 과학기술 전략' 등 총 5부로 나뉘는데 관계된 리더들이 책을 직접 읽음으로써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해보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변화:

향후 10년은 세계 질서의 파편화, 글로벌 격동의 시기

시기	냉전(30+10년)	탈냉전(30년)	신냉전(냉전 2.0)?
이념	자유주의 vs.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바이든의 이념 연대 표방⇒CRINKs 억제는 실패 트럼프의 실용·자국이익우선주의 기술/디지털 보호주의
정치	국가중심주의와 시장의 자율성 확보 노력	시장 중심주의	국가 중심주의, 반민주주의 조류 시장의 반발?
경제	진영화 (보호주의)	전면적 세계화 (개방주의)	진영주의와 제한적 개방 (보호주의와 시장의 재편성)
경제-안보 연계 강도	강함	약함	강함
경제-안보 관계	안보 우위	경제 우위	안보-경제 일체화
이론	현실주의 (경제 책략)	자유주의/구성주의 (무역평화론)	현실주의 (지정학/지경학)
국제정치 구조	양극화 미-소	미국 단일 패권	복합/다극화 추이 미-중-러-EU-Global South G- ⇒ G2 or G3?

중합국력 변화에 따른 강대국 구분

미국 대비 역량	구분	1차대전 이후	냉전시기	탈냉전 시기	현재	2035년 이후
	국제체제	영국⇒미국	양극	단극	단극⇒다극	중충적 다극?
2/3 이상	초강대국	미국 영국	미국 소련	미국	미국 중국	중국 미국
1/3~2/3 사이	2류 강대국	일본			러시아	러시아 인도
1/3 이하	3류 강대국 혹은 中強國	독일 프랑스 이탈리 러시아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에 대한 도전자들의 운명

미국과 경쟁국 갈등시 명목 GDP 격차 : 소련 50%, 일본 25%, **중국 2018년 66%**

시기	경쟁국	미국 GDP (조 달러)	경쟁국 GDP (조 달러)	GDP 비율	비율 (%)
1983(냉전 최고조)	소련	3.57	1.56	2.3 : 1	44
1985(플라자 합의)	일본	4	1	4 : 1	25
2008(금융위기)	중국	14.7	4.6	3.2 : 1	31
2018(건제 본격화)	중국	20.5	13.6	1.5 : 1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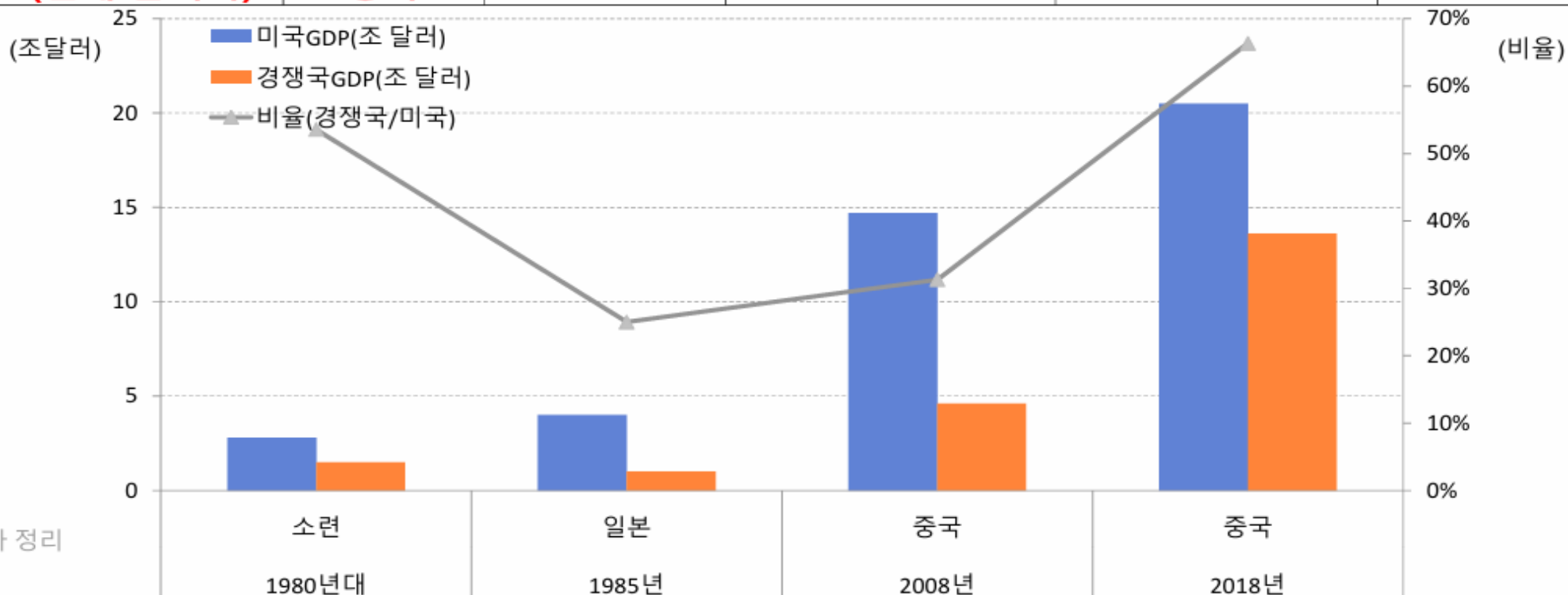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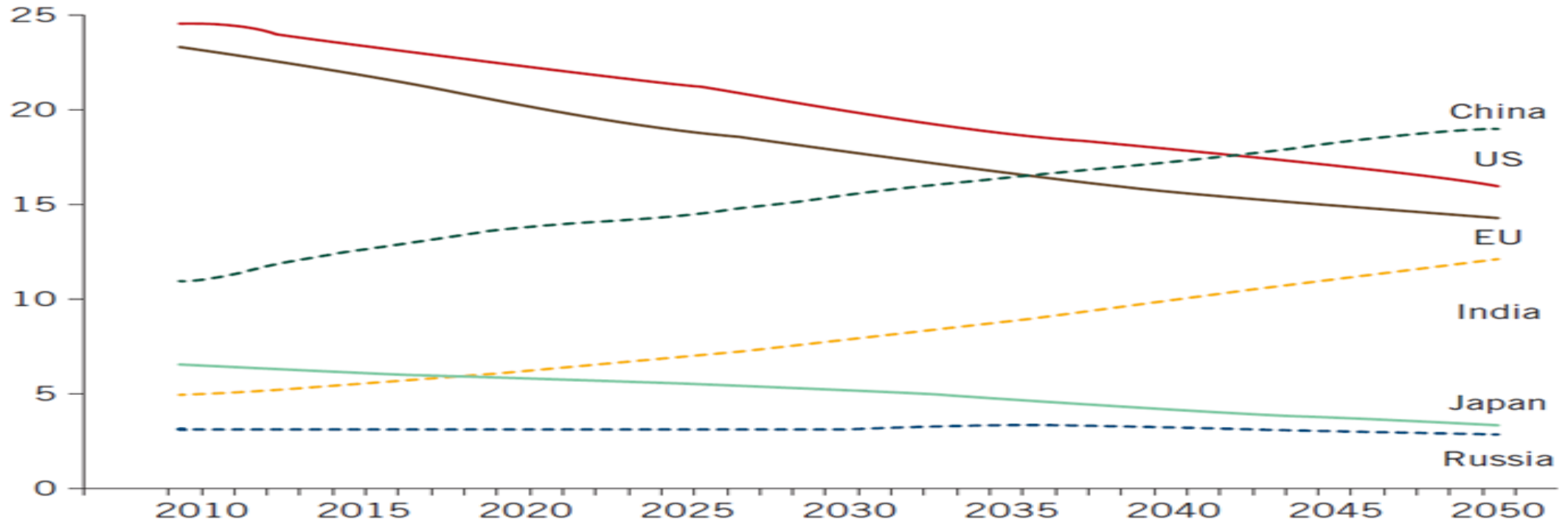


표) 코로나 이전 미국국가정보국(NIC)의 미중 국력 예측(2012)⇒ 낙관적

- 중국은 이미 2010년을 전후로 제조업에서 미국을 추월
- PPP 기준으로 2014년 미국을 추월
- 중국 제조 2025. 2020년대 들어 과학기술 경쟁에서 중국이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기 시작
: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인공지능(AI), Big Data, 사물인터넷, 로봇, 클라우드 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전기자동차, 신에너지 분야 등에서 미국 추월
- 2021년 미국 대 중국의 GDP 대비 = 71.5% 수준. 중국은 현재 5%성장, 미국은 2.5±



SOURC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30: Alternative Worlds*. December 2012. <http://www.dni.gov/index.php/about/organization/national-intelligence-council-global-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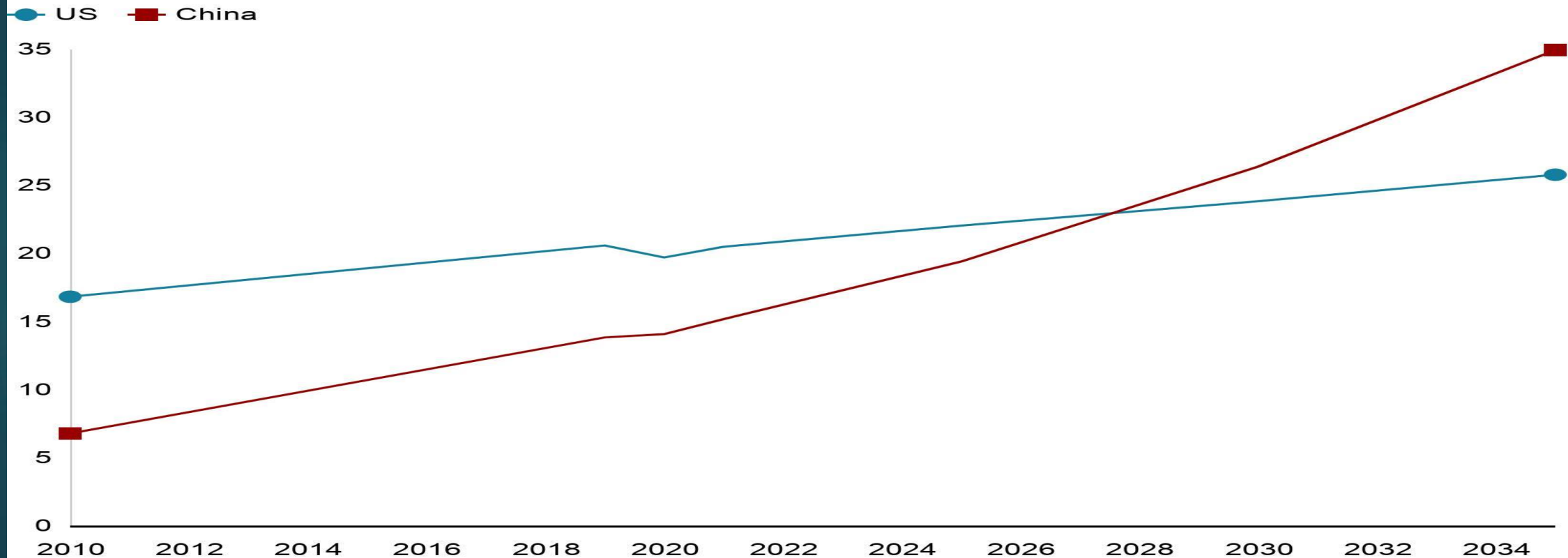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미중 경제규모 예측(2021)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중국의 부상 속도 늦춰짐

⇒ 중국 내부(런이푸)의 평가는 2030~35년경 미중 간 명목 경제규모 전이 가능
Harvard大, Glodman Sachs 연구 결과는 2035년 전후

US and Chinese economies 2010-2035

Gross domestic product in \$US trillions (constant prices)



Source: CEBR World Economic League Table 2021

중국의 AI 특허 현황

Granted AI patents (% of world total) by select geographic areas, 2010–23

Source: AI Index, 2025 | Chart: 2025 AI Index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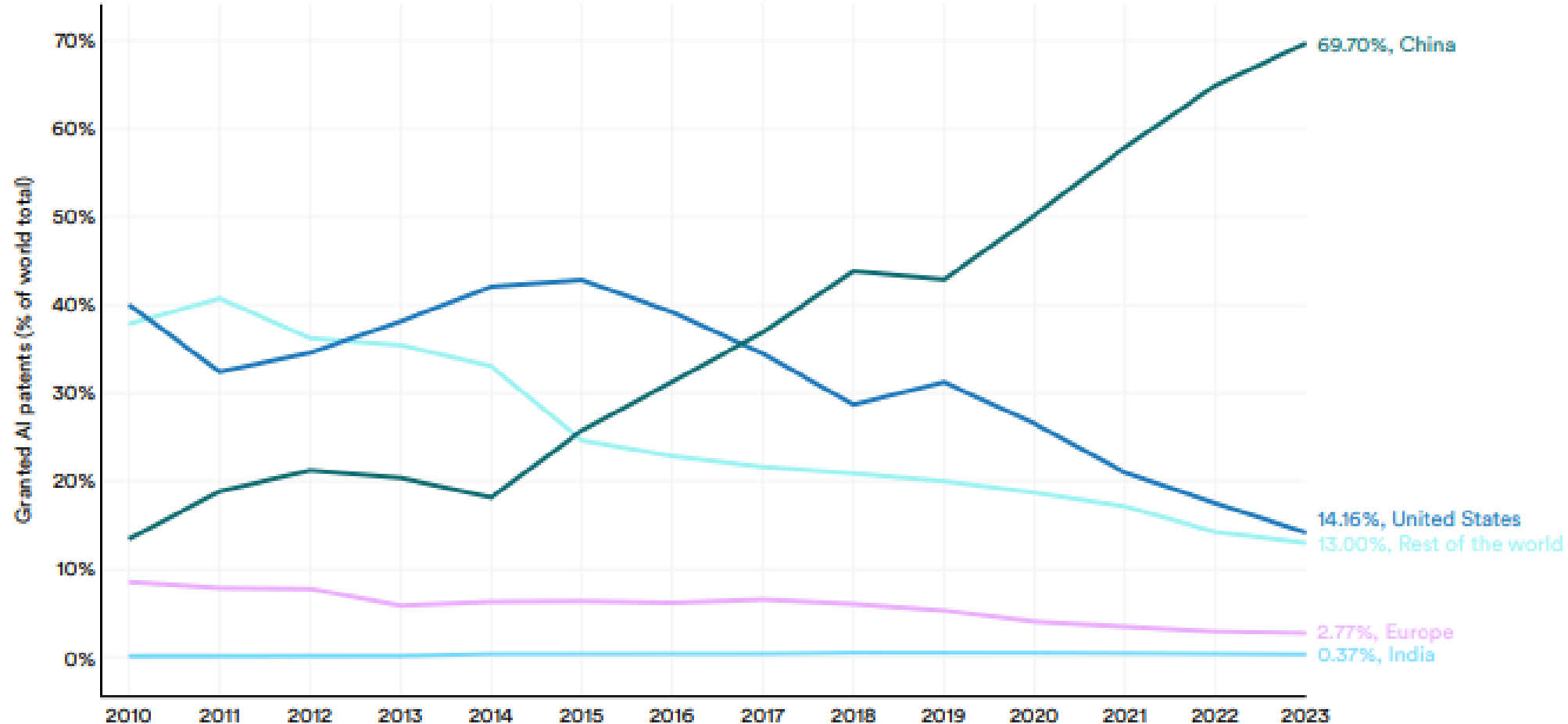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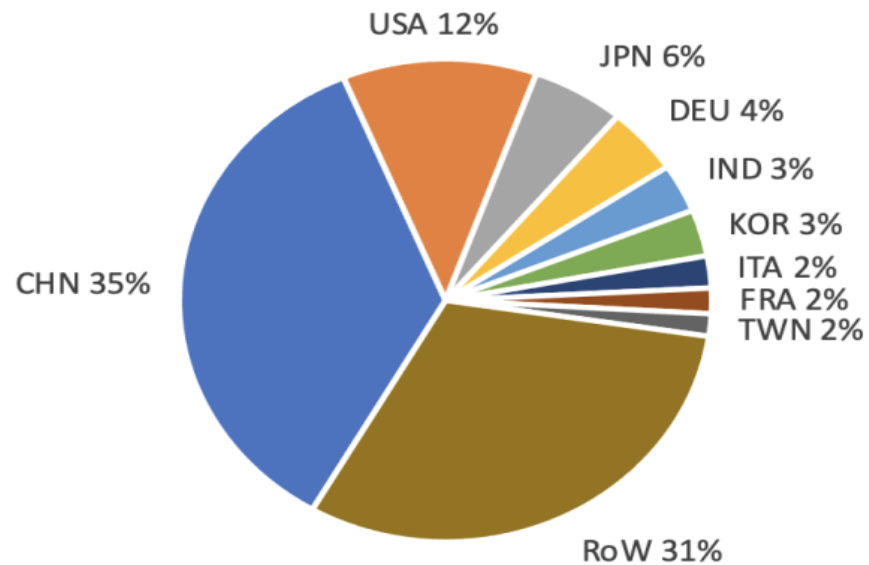


Figure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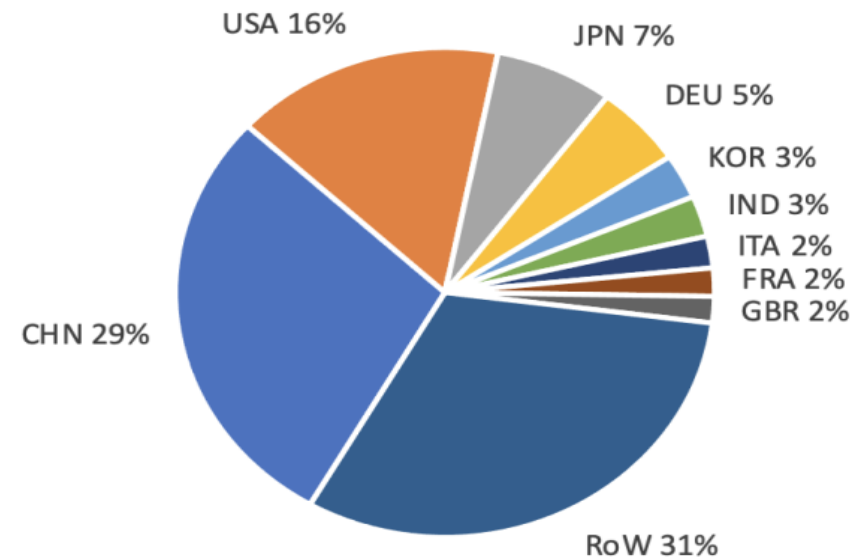
각국의 제조업 역량 (2023)

World's biggest manufacturing economies

Gross production (% world)



Value added (%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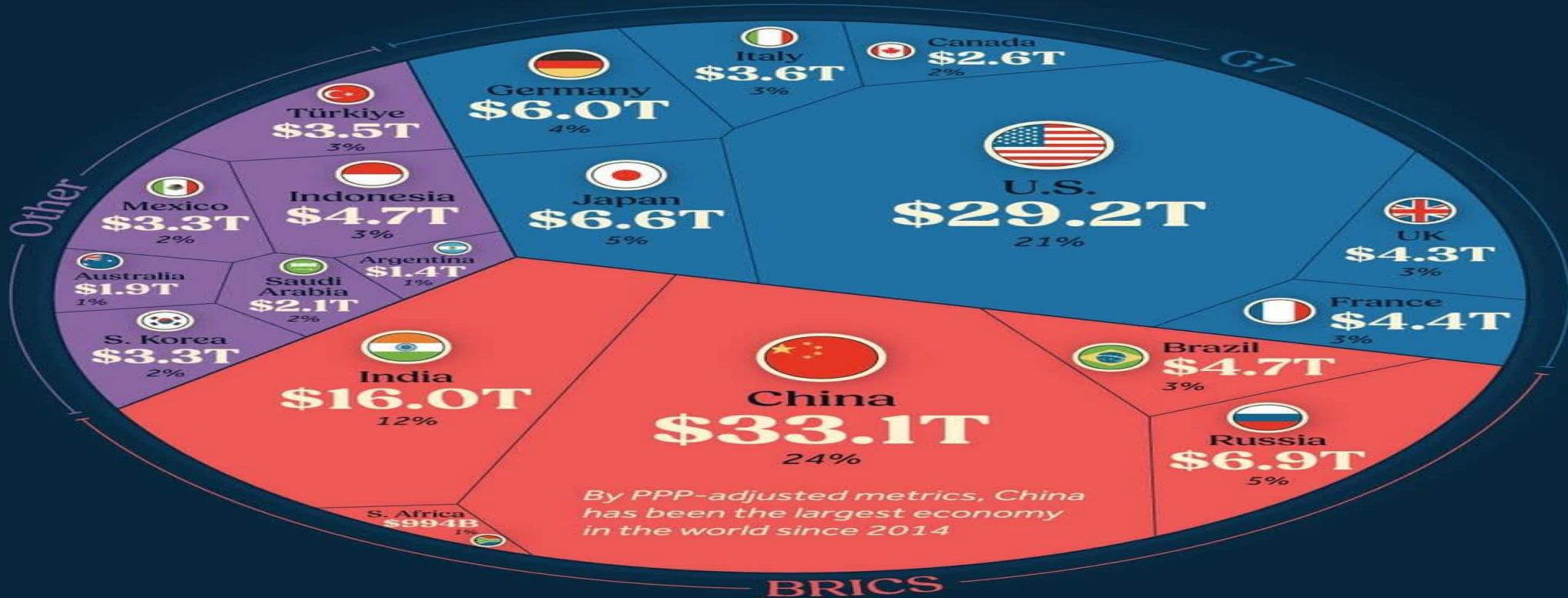
Source: Author's elaboration of OECD TiVA database 2023, PROD & VALU manufacturing sectors

구매력 기준 G20 GDP(2024)

G20 GDP

Purchasing power parity-adjusted GDP (2024) in International dollars

PPP-adjusted GDP measures a country's economic output based on local purchasing power, adjusting for differences in cost of living.



중국제조 2025 핵심 산업 점유율

이벌찬, 조성호, 김태준, “中 “2025년 제조업 석권”... 10년 전 그 위협, 현실 됐다”, <조선일보>, 2025.05.27.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5/27/NBP6LEUPPZBNZOXORYZJMBCZYE/

산업 분류	세계 시장 점유율	대표 기업
신에너지차 (전기차 및 전기차용 배터리)	전기차:(하이브리드 차 포함): 70%, 배터리: 60%(1위)	 BYD(전기차)  CATL(배터리)
인공지능(AI)	20%	 DeepSeek, Alibaba, Baidu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백신: 10%	 시노팜, CanSino
고속철도	50% 이상 (1위)	 CRRC
산업용 로봇	30%	 ESTUN, 유비테크, 유니트리
태양광	85%(1위)	 Longi
파운드리	6%	 SMIC
5G 이동통신	60%(1위)	 Huawei
농업기계	5~6%	 YTO, Lovol
조선	56%(1위)	 CSSC
항공	여객기: 6%	 COMAC
드론	80%(1위)	 DJI
특수철강	12%(1위)	 Baowu
송전장비	80% 이상 (1위)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국가전력망공사)

미중 전략경쟁 현황: 중국의 내구성이 우위로 보임

중국의 충격(Deepseek)	미국	중국
GDP(2023)	27조 7200억달러	18조 3700억 달러
무역의존도(무역량/GDP)	25.5% (60여개국의 1위 교역국)	21.2%(한국은 88.9%) (120여개국의 1위 교역국)
2차/3차 산업 가치	17.65%/81.51%	37.8%/53.5%
산업생산능력(세계)	6%	35%(2~10위 합보다 많음)
제조업 생산가치 점유율(2015→24)	18%→15.9%	25%→31.6%
철강 생산량	8070만톤	13억 8300만톤
전기 생산량	44940억	94564억
조선 세계점유율	0.2%	51%
자동차 생산량	1060만대	3020만대
기업경쟁력(세계 500위내 기업수)	122개	135개
과학분야 발표논문수	44만6천편	67만편
국내외 발명 특허건수(세계지식재산지표, 2023)	51만건	164만건
2024년 국가 종합경쟁력 순위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세계 12위	세계 14위 (참고: 홍콩 5위)
AI 연구역량	12만명(논문 8만8천건) 인도(19만5천명, 11만7천건), 한국(2만천명, 1만4천건)	41만천명(논문 22만건)

중국 강대국 외교정책의 공식화와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 의지:

세계의 발전 동력이자 안정자 역할 자임
공세적 지정학 외교의 강화

개혁개방 시대(富起来): ‘발전도상대국’의 국가정체성

- 이념적 정체성을 극복: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 선부론: 불평등과 불균형 확대
- 외자도입과 급속한 경제성장, 세계화 추진
- 도광양회론: 신중한 대외정책, 조화세계론
- 집단지도체제와 단계적 민주화 추진

시진핑 시대(强起来): ‘강대국’으로 국가정체성의 재구성

- 사회주의·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 분발유위(奮發有爲). 强軍夢. 핵심이익 수호 의지
- 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 대륙국가에서 대륙-해양국가로
- 동아시아 국가에서 유라시아의 중심국가로
- 경제중심에서 경제와 군사 병행
- 시진핑 1인 권위주의 체제 강화. Cf. 시진핑 실각설

중국의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장기대응전략

- 시진핑 주석의 중앙당고 연설(2019.9.3)
 - 2050년까지 장기적인 투쟁(장기전 개념)
 - 100년 만의 초유의 대변화 국면이라 정의(힘의 이동이 미국에서 동방으로)
- 2020년 정치국 회의 지구전 개념 제시(2020.7.30)
 - 중국은 전략경쟁은 불가피하고(Zero-Sum), 전면적-장기적-격렬한 경쟁이라는 의미 수용
 - 지구전에 대한 대비는 시진핑 집권시기부터 시작
 - 국제와 국내 쌍순환에서 국내대순환에 방점을 둔 경제전략으로 중점 전환
- 중공의 시기별 미중관계 전망
 - 2018-2022: 미국 공세, 중국 방어, 상호 탐색과 카드 준비
 - 2023-2027: 가장 격렬, 여타국가들에 선택 강요, Decoupling 추진
 - 2028-2035/40: 승패의 실체 드러날 전망

시진핑과 “중국 패권전략의 시동?”

○ 두개의 100년 전략 제안, 2013

- 2021년까지 소강사회 달성,
-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1인당 3만불 소득)

○ 제19차 당대회(2017) 시진핑 사상과 대담한 발전 전략 제시: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권력의 집중화 추진

-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30년의 시작(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목표)
- 20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 2035~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실현

○ 100년만의 격변기 인식과 중국의 변화(2019~2024):

- 세계의 중심 축이 (유럽⇒미국)에서 동방으로 이동 ⇒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극심한 시기 관리 필요. 중장기적으론 중국이 최강국이 될 것이란 신념
- 새로운 강대국 외교와 권위주의 체제 강화 ⇒ 미중 전략경쟁 촉발
- 직접적인 대결을 선호하기보다는 게릴라전 방식처럼 미국의 역량을 소진시키는 전략을 선호하고, 점진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을 축소시키는 전략 채택
- 인류운명공동체론
- 세계 4대 구상 제안 (발전, 문명, 안보, 거버넌스 구상)

중국의 대미 전략

- 중국은 트럼프의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압박, 부동산, 금융 부실화, 부패, 경기둔화와 실업률 문제에 직면 ⇒ 5%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미국보다 두배 이상 빠른 성장 가능

○ 중국의 포괄적 대응

- 재정·규제를 완화하여 내부 시장의 유동성과 활력 강화. 경제 자유주의 강화
- 쌍순환 전략의 완성, **국내 순환 강화**로 외부 충격 방어 (중국 무역의 해외 의존도 21.5%)
- 외교적으로 주변국 외교를 핵심으로 중시. 중간지대, 유럽, 글로벌 남방과의 관계 강화
- 군사적으로 군부 숙정과 군현대화 동시 추진(시진핑 체제의 강화!).
- 2030년대까지 서태평양에서 재해권 우위 확보

○ 중국의 경제적 대응

- 상용적, 수동적 대응: 무역관계, 기술수준, 재제 수단의 비대칭성 상황에서 **조치의 상용성 확보**
- 지연전략: 트럼프와 협상 자체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유리
- 구매전략: 중국기업의 대미투자율 연계되도록 결부

- 중국에게 2025년은 많은 대내외 압박에 시달리겠지만, 일부 기대처럼 **총체적 난국이나 붕괴의 가능성은 없음**

-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서방 주류의 인식은 ‘매튜 에반제리스타’, ‘아노스 코르나이’ 류의 비판: 체제적인 문제로 창의력 부재, 과도한 경직성, 관료화로 인해 비용이 커서 결국 붕괴에 이른다는 주장
- **중국내 트럼프의 미국은 위기보다는 기회라는 생각도 존재** (민주주의 모델로서 미국의 이미지 추락, 중국의 기술 독립 가속화, 비서구사회와의 유대 강화, 미-유럽 갈등은 중-유럽 접근을 강화)

중국의 패권?

- 중국은 세계적인 이미의 패권을 추구한 적은 없음. 시진핑 시기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적인 패권을 추구하는 대신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추진.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지위와 영향권 확보
- 중국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현 중국은 세계적인 패권 가능성과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부상중
- 중국의 천하 사상은 세계를 유기적인 일체로 이해. 음과 양, 선과 악, 분열과 통일이 다 얹혀 있음. 역사적 낙관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존재. 다만 천하 질서는 위계적이란 생각이 강함. 그리고 중국은 그 천하 질서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관념
 - 시진핑의 중국은 유구하고 복잡다단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근대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결합하여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를 추구.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금융자본주의 체제의 수용은 불허. 대신 공산당 일당 권위주의 체제, 시장과 결합한 국가자본주의, 성장과 분배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생태환경을 고려한 녹색·고품질의 발전 전략을 추구.
 - 대외적으로는 이미 상부구조를 오랜 세월 장악해 온 미국과 서구사회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하부구조의 강화,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국제 상부구조의 변환을 추진.
- 미국의 문명은 서구 기독교 사상에서 유래. 선과 악, 우와 적의 이분법적 질서 관념. 신의 권능 아래 모든 선한 세력의 평등성 인정. 다만 악은 척결되어야 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신념. 미국은 이 선한 싸움의 지도자.

☞ 그런 연유로 중국과 미국은 국가전략의 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존재

중국 관점: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승리할 이유

(김홍규 교수 북경 인터뷰, 2024. 2)

1. **체제적인 안정성.**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 미국과 서구 내부의 분열상은 더욱 격화
2. **역사 문화적 동질성.** 미국과 같은 다민족 체제에 비해 통치가 용이하고, 환난 시기 내부적 단합과 극복을 할 수 있는 내구력 존재
3. **국제정치 개입비용이 낮음.** 중국의 철학적 기초는 다원주의, 관용적, 포용적. 미국은 2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어 보다 갈등적임.
4. **중국 인력의 우수성.** 정치지도자, 중간관료, 산업 인력에 있어 중국이 절대적인 우위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현실화(세계 150여개국과 연계)





트럼프 시기

미중 전략경쟁:

단극체제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극세계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결국 본래 출발했던 다극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마르코 루비오(미 국무장관)

Trump의 귀환

2025년 1월 20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미국 중심주의와 19C 미국 제국주의의 결합



트럼프의 의도와 각국의 대응전략!

1. 무역역조 시정

⇒ 협상과 타협을 통한 조정

2. 패권지위 유지 위해, 대중국 압박 및 비전통적 수단 활용

⇒ 협상, 헤징, 다자적 연대 등 적극 모색

3.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과 미국 영향력 유지 의도

-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트럼프는 미국 패권 포기하지 않음
- 강대국간의 타협과 합의에 의한 질서 속 미국의 주도권 유지
- 러시아와 대중국 견제정책 추진 희망 ⇒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유럽 관계 희생?
- 핵심은 금융(Stable Coins), 군사, 제조업 역량 재확보 ⇒ AI를 통한 중국 극복
⇒ 따라서 현재는 트럼프발 도광양회전략의 추진(시간벌기와 내적 균형 강화)

☪ 현재 상황에서는 3번째 의도가 가장 궁극적인 방향이면서 기존 국제사회에 대혼돈의 결과 가져옴

트럼프의 MAGA: 미국 우선주의와 힘의 재건

○ 미국 이익 중심으로 세계 질서 재편

- 미국 좌파(진보), 자유주의가 추구하던 [포용-평등-다양성] 정책 종식
- 동맹에 대한 배려 없음. 모두 미국의 경쟁자 ⇒ 동맹 부담금 대폭 증액
- 중국을 가장 위협 세력으로 인식 (단, 탈동조화는 어렵다는 것 인지)
- 국방력, 달러파워, 소프트 파워의 약화. 대신, '방대한 국내소비' 를 무기화
- 미국 백인 근로자 농민 보호, 기독교 전통 · 정신 부활

○ 핵심 제조국 지위 회복

- 해외 주요제조업의 대미 이전 압박
- 관세라는 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대외정책 전개 ⇒ 무차별적 대규모 관세 부과
- 대외무역에서 자체 공급망 안정성 확보 ⇒ 미국 위주의 새로운 질서 창출

○ 군사 역량 강화와 현대화 추진 ⇒ 한국의 조선 및 방산능력 지원 절실

- 무력사용은 보완적 수단. 국제 직접 군사 개입은 자제

○ 금융 패권 유지

- 미국의 StableCoins vs.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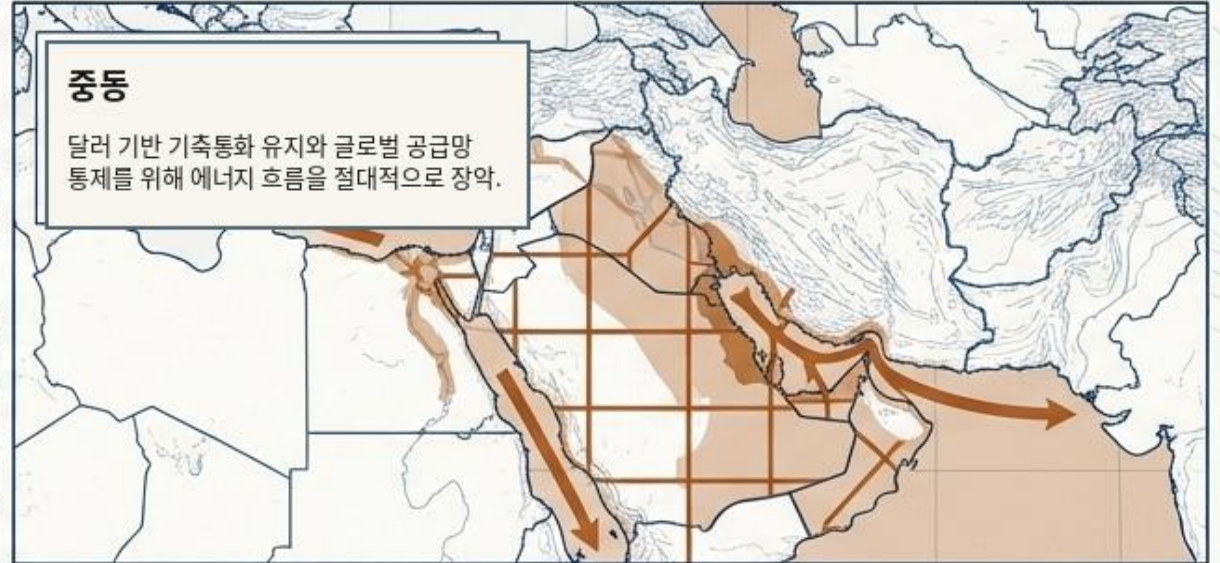
○ AI와 우주항공 영역에서의 우위 바탕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 정향

1. 안보 중심 강경파: 중국을 체제적 위협으로 규정, 전통 보수개입주의
 - 전직 풀페리오 국무장관,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 계열, 네오콘 인사, 마이클 윌츠, 피트 허그세스 국방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 중국 공산당 체제와의 충돌 불가피론, 군사력 강화
2. 산업중심 경제민족주의자: 중국은 미국 노동자, 산업의 최대 위협, 국제적 개입 최소화
 - **JD 밴스**, 피터 나바로, 러스트 벨트 관련 제조업 보호론자,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
 - 고관세,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3. 억제파·실용협상파: 중국을 경쟁자이지만 협상 가능한 상대로 취급
 - 친기업 성향 경제관료, **스콧 베센트**, 윌스트리트, 엘브리지 A. 콜비. 등 일부 국방 실용주의자
 - 무역 갈등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완화 시도
4. 포퓰리스트, 정치적 반중파: 반중 정책을 국내정치적 동원수단으로 활용
 - 스티브 배넌 같은 트럼프 핵심 선거 캠프인사, 존 래트클리프 전 CIA 국장, 극우성향, 보수와 연계된 전략가
 - 반중 담론을 극대화해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
5. **트럼프** 자신: 거래적 정치적 전략가
 - 협상을 통한 성과 과시
 - 자신의 지지 세력 주장을 활용하나, 필요시 중국과도 빅딜을 만들어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
 -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이란 군사 개입 등 무력을 통한 국익 추진 ⇒ MAGA의 분열 초래

종합: 미국의 글로벌 재편 전략

중동 분쟁은 더 넓은 '보수적 국제주의' 교리의 한 전장이다.





시장의 서사

장기 군사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 우려가 커졌고, 이는 중국에 치명적 에너지 부족이 올 것이라는 공포를 낳았다.

취약성 데이터

현재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42%(하루 약 490만 배럴)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사우디 14%, 이라크 11%, UAE 7%, 오만 6%, 쿠웨이트 3%, 카타르 1%가 주된 비중이다.

결론

원유 수입 취약성은 현실이지만, 중국의 실질적 에너지 안보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구조적으로 과장된 신화에 가깝다.

해협 봉쇄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

100% 완전 봉쇄 가정시에도 손실분 상쇄 가능



한국에 대한 함의: 방관자의 딜레마



취약성: 중국과 달리 한국은 장기 중동 에너지 충격을 상쇄할 육상 파이프라인망과 대규모 국내 석탄·재생에너지 기반이 부족하다.

1. 공급망 전환

걸프 의존 원유에서 벗어난 중국의 급속한 다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벤치마킹해야 한다.

2. 에너지 전환

기후 목표를 넘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로서 국내 재생에너지를 가속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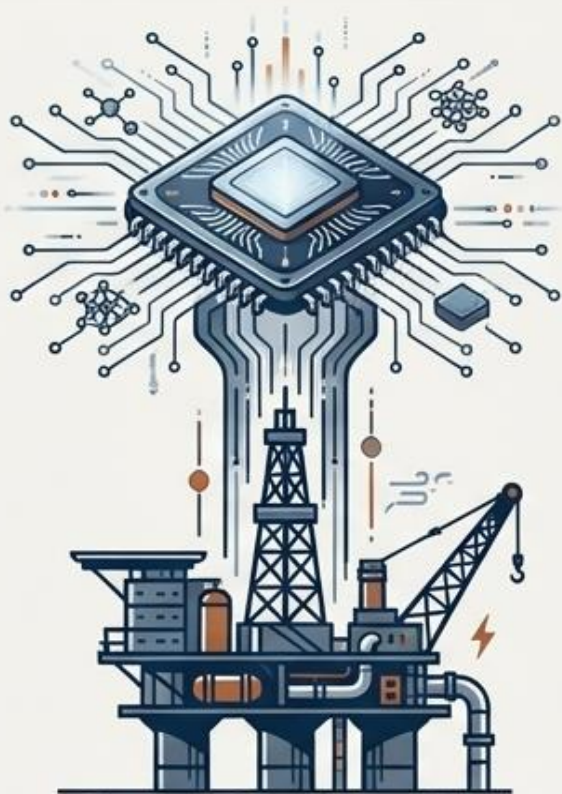
3. 외교적 기민성

미국의 기술·금융 패권과 중국의 지역 다극화 확장 사이에서 좁아지는 공간을 정교하게 항해해야 한다.

다음 전장: 기술과 금융

미국 패권은 미래의 영역을 지배하는 데 달려 있으며, 그 미래는 과거의 자산 통제를 필요로 한다.

기술과 전통 에너지



대규모 전통 에너지 기저 자산 확보는 차세대 인공지능의 극단적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금융과 우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보급으로 미국의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고, 우주 기반 역량을 가속화해 글로벌 통신망을 장악·통제한다.

cap

중국의 전략적 역공

미국의 글로벌 지배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다영역 국가 전략.

외교 (글로벌 질서)



대만해협이라는 제1도련선을 넘어 동남아를 포섭하며 결정적 다극 대안을 구축.

경제 (쌍순환)



빠른 기술·공급망 자립으로 서방의 시장 제재에 대한 방어력을 높인다.

금융 (CBDC)



중양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격적으로 전개해 SWIFT 체계를 우회하고 달러 결제 무역을 회피.

군사 (2027)



PLA 창건 100주년인 2027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실현을 목표로 군 현대화를 가속한다.

추후 10년의 세계

-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경제를 지배했던 미국 자유주의 패권-상대적 안정성-다원주의 사고와 정치제도는 크게 약화
- **차기 10년은 혼돈과 격변의 시대!** 다극화의 추세속에서 지정학의 부상과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에 결합된 안보중심주의가 중시.
 - 미·중·러의 각축, 새로운 동맹 축의 변화, 경제민족주의
 -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
 - 인도의 역할 증대
 - Global South의 중요성 부각
 - 세계는 갈등의 폭증가운데에서도 AI와 같이 폭발적인 기술의 진보, 약 2.9% 수준의 평균 무역량 증가 예상(BCG, Great Powers, Geopolitics, and the Future of Trade, 2025.01)
- 미국의 도광양회 전략과 굴기(?)
- 인도-태평양이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공간이 될 것으로 예측
 - 미국은 제2도련선으로 후퇴중(한국과 대만 제외 의미?)
- AI, 항공 우주, 해양 안보, 에너지, 북극해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갈등 확산

트럼프 발 혼돈 속 각국의 헤징이 대외정책의 핵심

○ 글로벌 차원

- **미중의 일시적 타협과 불안정한 전략경쟁의 지속**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확대. 군사적 해결 가능성 중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고민과 분열
- 중동 전선의 혼미는 역내 러시아와 중국이 최대 승자
- 미국의 무차별적인 글로벌 관세부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과 혼란 가중
- 미국은 중국과 경쟁 강화 공언하지만, 이란/글로벌/국내선거 문제에서 중국의 지원 절실
- 해양안보와 북극해 이슈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중: 중동문제로 인한 수에즈와 홍해 해양 안보문제 대두,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의 중요성, 트럼프의 그린랜드 합병 시도, 미 해군력의 급속한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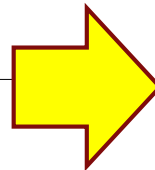
○ 동북아 차원

- **중국의 역내 영향력.역할 강화 ⇒ 일본의 무장 강화**
- 중국의 공세적 접근, 지역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초보적 노력
- 새로운 규범과 질서의 암중 모색, 한-일 협력의 강화와 중국의 불편한 속내

○ 한반도 차원

- 북한발 자강 정책과 북러 협력의 강화⇒ 안보 불안 상황 강화
- **중국과 북한의 새로운 결속 강화: 전승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정**
- 트럼프의 한미동맹 신뢰 문제 제기
- 미국과 중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화
- 트럼프발 무역분쟁 강화로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미중관계 4가지 시나리오		안보	
		대립	협력
경제/ 공공재	대 립	신냉전(신냉전파)의 도래 - 트럼프 시기 ~11기 강한 미국 vs. 강한 중국-러시아 체제와 이념의 대립 전략/신기술 차단과 광범위한 탈동조화 추진 - 미 공화당의 대중 압박 강화 예상 ⇒ 한미동맹 강화. 중러와 위기관리 문제 대두. 남북한 평화체제 추진 난항과 남북한 충돌 방지 노력 필요성 강화 ⇒ 한국의 자체 안보 역량 강화 압박. 한국 핵무장 여론의 중대	전략적 협력속 경쟁(전략적 협력파) - 트럼프 이전 시기 강한 미국/중국의 부상 세계적인 상호의존의 세계 - 향후 재개 가능성은 거의 없음 - 미중 상호 협력과 헤징전략 ⇒ 한국은 북한과 적극적 소통과 경제 협력 등 <u>평화기반 강화 노력</u>
	협 력	전략경쟁속 제한된 협력(전략 경쟁파) - 바이든, 해리스 시기 악화된 미국/자강 강화하는 중국/중-러의 분리 전략/신기술 차단과 <u>부분적인 탈동조화</u> 추진 미일동맹을 대중 전선의 축으로. 한국의 변연화 우려 - 미 민주당 재집권시 ⇒ 한미 포괄적 동맹-핵우산 확장과 대중 적대 자체 한국은 소극적 한반도평화 지향하면서 자체 안보 역량 확보를 모색	미중 경쟁적 공존과 혼돈의 시대. 복합 다극화 시기 (현실·실용주의파) - After 트럼프 - 대중 압박 정책의 실패 이후, 동등한 미중 지위 인정 불가피 - 당분간은 혼돈의 시대이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인 - 미중 모두가 국내문제 등으로 대외적 개입 어려움 - <u>국가이기주의의 극대화.</u> ⇒ 한국 복합 위기 직면. 실용외교 요망. 핵무장 추진의 압박 고조





한국의 외교안보와 위기

정책 제언:

자강 의식과 공감대 정치의 회복

윤석열의 유산: 불확실성의 증가와 벼랑끝에 몰린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충체적 외교 · 안보 위기 직면

-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의 급격한 약화와 세계 다극화 추이로의 전환
- 시진핑의 공세적 부상 정책과 미중 전략경쟁 시기 돌입. 새로운 국제질서와 공급망의 형성 과정
- 대한민국은 완전 고립된 양상

○ **트럼프 시대의 미국**: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의 아류로 인식. 미국의 방어망에서 배제 가능

- 새로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일본은 대만의 산업, 미국은 한국의 산업 역량 흡수하는 **신 가쓰라-테프트 상황** 가능
- 트럼프의 귀환⇒한미동맹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

○ **중국과는 신뢰도 수교이래 최악에 도달**

- 현재까지는 중국의 균형외교 작동하고 있으나 점차 태세 전환 가능성 고조

○ **일본의 無心과 견제**: 한일 관계 개선에 공들이고 있으니 일본의 협력 수준은 여전히 미지수

- 일본내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의견 불일치

○ **러시아와 준전시 상황**: 수교이래 최악. 비우호적 관계로 전환. 상호 보복 시작, 북러 밀착

○ **북한의 압박 강화**: 북한의 탈김일성화 주목해야. 핵무장과 선제공격 독트린 선언. 탈한국화 정책 추진

- 남북간 국가대 국가 관계 선언, 남북한 군비경쟁 시대의 본격적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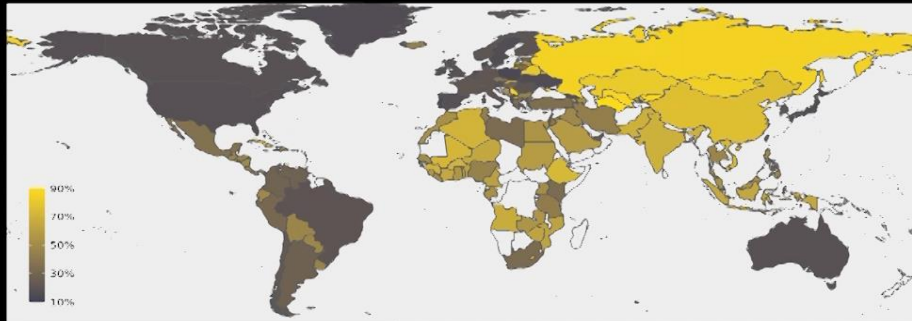
○ **글로벌 사우스 외교의 대추락**

- 윤석열 시기 부산 엑스포 유치경쟁에서 29표 획득

분열된 대한민국 1: 남북관계 개선이 핵심

복합다극화된 세계와 미국 중심 국제질서의 약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균형외교 추진, 문재인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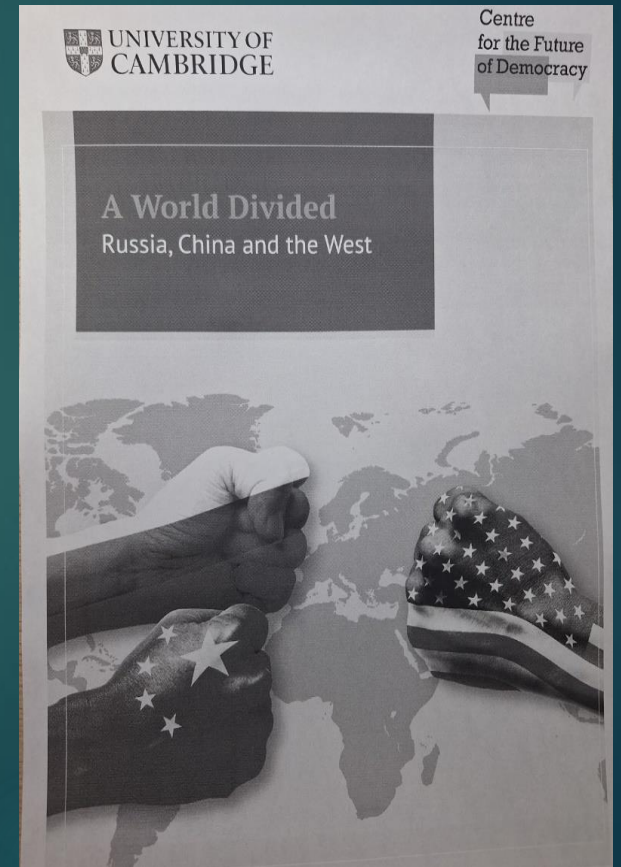
A World Divided: 202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 보고서



러시아 우호국



중국 우호국



분열된 대한민국 2: 신냉전 상황 수용

민주주의 vs. 권위주의 대결 인식 (윤석열 정부)

긴장감 고조되는 유럽



- 자유민주주의 진영
- 나토 회원국
- 러시아·친러국가



재편되는
세계 질서

결속 강화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한·미·일, 인태 지역 새 핵심 안보 협의체로
-3국 첫 별도 정상회의(18일 캠프 데이비드) 후 정례화

나토 강화 움직임

-핀란드 가입, 스웨덴 가입 절차 돌입
-한·일·호주·뉴질랜드 AP4 파트너십 강화

쿼드(미·일·호주·인도), 오키스(미·영·호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 안보·군사·경제 3중 대중국 포위망



밀착 과시하는 북·중·러 전체주의 진영

푸틴 러 대통령 10월 방중

-중·러 합동 군사훈련 횟수 20년 만에 최다
-중은 러시아산 에너지, 러는 중국산 반도체 수입 확대

북 6·25 정전 기념식에 러 국방장관, 중 공산당
정치국 위원 참석

북·러시아 무기 수출 의혹

북·중 육로 교통 회복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대외정책은 제3의 대안

- 자주와 동맹주의보다는 ‘실용’이라는 제3의 기조를 제시
 - 한미동맹 강화, 한일 협력 강화 속 실리 확보
 - 중국과의 관계 관리 노력
 -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노력(한미관계에도 도움)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모색
 - 10월 말 APEC 정상회의 외교의 성과?
- 북한 비핵화 우선 추구보다는 공존과 평화 우선 추구
 - 공존과 평화⇒ 군축 ⇒비핵화와 통일
 - 남북 대화와 교류 모색, 경제협력 추진 ⇒ 북한의 탈한국 정책 추진
- 격변과 혼돈의 국제정세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 인사문제?

4부류의 대외정책 정향: '자강' 은 이제 핵심 수사가 될

- 첫째는 동맹을 기초로 자강을 이루자고 주장
- 두 번째는 국제연대를 기초로 새로운 국제적 변화에 대처하고 자강을 달성하자는 그룹
- 세 번째는 자강을 기초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자는 '민족' 중시 그룹
- 네 번째는 자강의식을 기초로 동맹과 국제연대를 결합하자는 실용주의 그룹

○ 4개의 옵션

- ① 미국과의 동맹에 더욱 매달리기, ② 자체 핵무장과 동맹 이탈, ③ 국제연대 강화 포함한 복합 헤징 포트폴리오 외교, ④ 중국에 연대 혹은 굴복

○ 평가:

- ①의 옵션은 당장은 가장 중요하지만, 점차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비현실적이 되고 있다.
- ②의 옵션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실현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 ③의 옵션은 우리 외교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대한민국이 현재 ③의 길을 택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 ④의 옵션은 최악이다.

○ 선택:

- 한국의 선택은 당장은 ①의 옵션을 주축으로 하고, ③의 옵션을 결합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②의 옵션은 플랜C로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국의 반도체 · 배터리 · 자동차 해외생산시설: 미국과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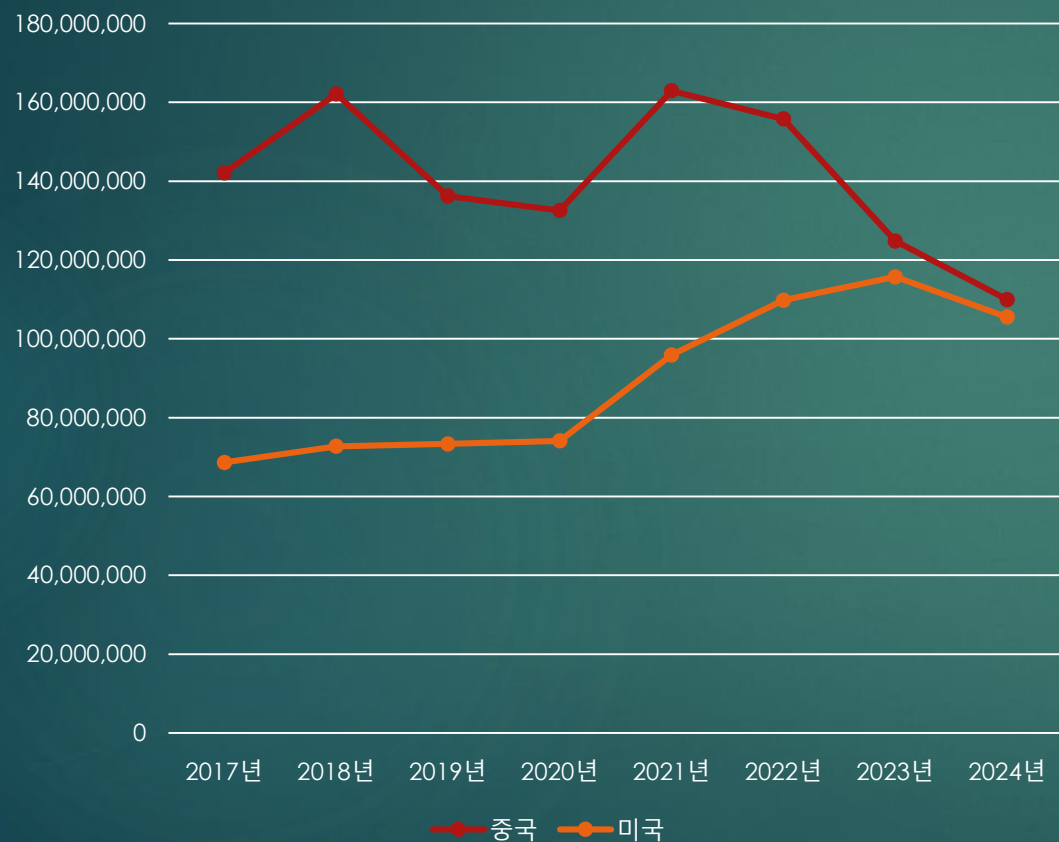
산업	기업	미국	중국
반도체	삼성전자	- 오스틴: 파운드리 - 테일러: 파운드리(건설중)	- 시안: 낸드플래시 - 쑤저우: 반도체 조립 및 검사
	SK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예정	- 우시: D램 및 파운드리 - 다렌: 낸드플래시 - 충칭: 후공정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	- 미시간: 전기차 배터리 26GWh - 애리조나: 원통형 및 ES LFP 배터리 43GWh(25년 예정) -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GM 합작): 전기차 배터리 140GWh(25년 예정) - 오하이오(혼다 합작): 전기차 배터리 0GWh (25년 예정) - 조지아(현대 합작): 전기차 배터리 30GWh (25년 말 예정)	난징: 원통형 및 파우치형 배터리 93GWh
	SK온	- 조지아: 전기차 배터리 9.8GWh (23년 21.5GWh 예정) - 켄터키(포드합작): 전기차 배터리 86GWh (26년 예정) - 테네시(포드합작): 전기차 배터리 43GWh (26년 예정)	- 창저우(베이징자동차 등 합작): 전기차 배터리 7.5GWh - 후이저우(EVE에너지 합작): 전기차 배터리 10GWh - 옌청: 전기차 배터리 27GWh (24년 +6GWh 예정)
	삼성SDI	인디애나(스텔란티스 합작): 전기차 배터리 (25년 33GWh → 27년 67GWh 예정)	- 텐진: 소형 배터리 - 시안: 중대형 배터리
자동차	현대	앨라배마: 30만 대	베이징/창저우/쓰촨: 25만 대
	기아	조지아: 30만대	장쑤: 15만대

한국의 국가별 수입비중 및 고의존도 품목[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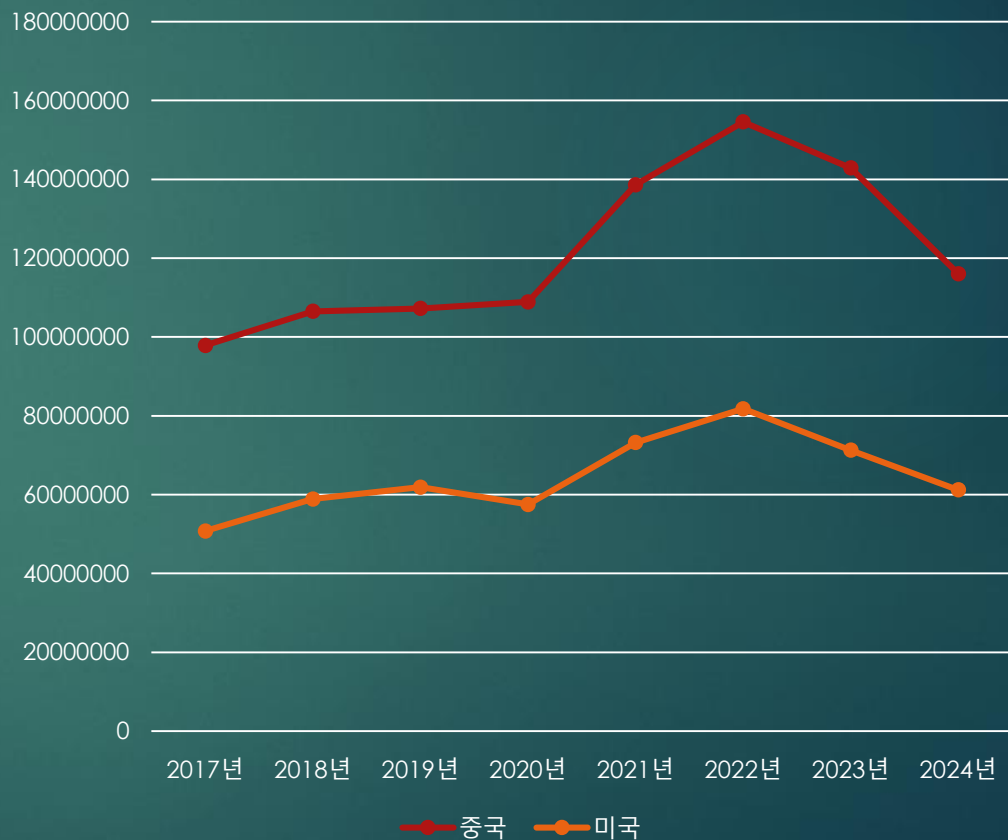
업종	품목	국가	%	업종	품목	국가	%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중국	23.1	기계장비	공구 및 기계요소	중국	40.1	
		일본	21.4			일본	17.2	
		미국	17.0			미국	10.2	
	반도체 제조장비	미국	23.3		공작기계 및 산업로봇	일본	34.5	
		일본	23.3			중국	31.1	
		네덜란드	22.8			독일	8.1	
디스플레이	소재 및 부품	일본	33.2	전기장비(이차전지 포함)	부품 및 기타 전기장비	중국	49.0	
		중국	29.0			미국	12.3	
		미국	12.2			베트남	9.7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일본	24.0		전기변환·공급제어장치	중국	36.6	
		미국	19.9			일본	20.7	
		중국	17.0			독일	10.0	
무선통신기기	무선 및 방송통신부품	베트남	54.1		발전기 및 전동기	중국	36.7	
		중국	29.6			필리핀	20.7	
		대만	2.6			미국	17.3	
	전자부품	중국	38.0		양극제(원료,전구체,활물질) 등 이차전지 소재	중국	63.7	
		일본	20.6			일본	13.0	
		대만	9.0			미국	4.3	
자동차(전기차포함)	자동차부품	중국	47.4		이차전지 부품 및 제조장비	중국	36.0	
		베트남	7.9			일본	13.9	
		독일	7.5			미국	13.5	

대중 및 대미 수출입: 2017년 - 2024년

수출



수입



대중 투자 철수

갈수록 중국 사업 축소하는 한국 5대그룹

삼성	2019년 광둥성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 폐쇄 2020년 장쑤성 쑤저우 PC 조립공장 폐쇄
현대차	중국 전기차업체 리상과 베이징1공장 매각 협상 베이징 2공장, 창저우 4공장 임대 및 매각 검토
SK	2021년 베이징 SK타워 매각 2021년 중국 SK렌터카 도요타에 매각
LG	2019년 저장성 냉장고 생산시설 폐쇄 2020년 LG 베이징 트윈타워 매각
롯데	2019년 롯데백화점과 마트 완전 철수

줄어드는 한국 기업
전체 중국법인 매출액
(단위=억달러)

*자료=수출입은행

2,502
2013년

2,412
2014년

2,080
2015년

1,870
2016년

1,758
2017년

1,420
2018년

1,475
2019년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매출 감소 원인(단위=%)



*2020년 산업연구원 · 중국한국상회 공동 중국 진출 기업 480개 대상 설문조사.
중복응답 가능

한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니어 재단 정덕구 이사장님의 “극중지계” 견해에서 일부 수정

1. 주변 강국과 극단적·적대적 관계 설정 말아야
2. 일본 및 미국 등과 전략적 소통 강화하고 새로운 공급망과 국제질서 구성에 긴밀히 협력해야
3. 대북 경사외교 벗어나고, 미중 장기전 대비해야
4. 북핵미사일에 대응할 자체 군사 역량 갖춰야
5. 중국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분쟁 가능 영역 관리해야
6. 한미일 공조와 더불어 다양한 소다자, 한중일-한일러 협력의 동시 추구
7. 새로운 국제질서 규범 형성에 적극 나서야
8. 해양안보의 중요성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비 필요.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 필요
9. 한국형 솔라리움(Solarium)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현 정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공감대 확보 필요 ⇒ 국가 전략과 정책의 추진

정치적 안정과 단합, 지속 가능한 사회는 새로운 국

제환경에 적응을 위한 필수 조건임

(하용출, 미국 워싱턴 대학교 잭슨스쿨 한국학연구소장)

- 한국 외교는 지금까지 지나친 대미 의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친미-반미라는 극단적 국내 정치가 판을 쳐왔음.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정치는 사실상 그 기저에는 대미 중속을 전제로 진행된 것으로 새로운 국제환경과 미국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함
- 과거 한국은 초당적 외교의 힘을 경험한 적이 없음. 초당적 외교 경험의 결여는 궁극적으로 대미 의존을 타성화하고 한국의 정체성에 기초한 외교의 성공을 어렵게 함.
- **중국과의 관계가 관건.** 중국에 대한 피상적 기대와 선입견을 넘어서, 가장 실제적인 영향력과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로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 내 자신의 국력과 전략적 역량이었다.

한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침공과 강압을 극복하려면 강대국
에 대한 편승이 관습화, 이념화되어서는 안된다.

중소국, 끼인국가인 한국은 항상 자강하고 주변 누구보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앞뒤를 재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전봉근 교수의 **한반도 국제정치**의 비극에서 수정]

감사합니다!